



NEW SPIRIT

Mindanao, Philippines


Inho & Yeonji Park
 1111 Copper Street
 San Rafael Village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h.park@gmail.com
 agnes.yjpark@gmail.com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9년 6월

선교편지 제 121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지난 5월 디고스예일교회에 속한 중고등부 학생을 대상으로한 Youth Camp가 이틀동안 있었습니다. 서로 자주 보는 얼굴들이지만 참가를 위한 부모님의 동의서도 받고, 교회에서 실시하는 행사로는 최초로 학생당 20페소 (약 40 센트)의 등록비도 받았습니다. 등록을 마친 34명의 학생들이 마치 큰 행사를 치르는 것처럼 명찰도 달고, 인솔 교사를 따라 그룹을 지정 받았습니다.

이번 Youth Camp 프로그램은 주제에 따른 성경공부와 친교도 있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중고등학생들에게 교회에서 연주되는 각종 악기를 직접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악기에 대하여 관심은 많지만 배울 수 있는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 Youth Camp를 통해서 악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려 주고, 간단한 연주도 해 보고, 본인의 흥미와 재능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디고스예일교회에는 기타 2대와 드럼, 키보드가 각각 1대씩 밖에 없기 때문에 30여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이 일을 위해 장학 사역에 속한 음악에 재능이 있는 대학생들이 제한된 환경 가운데 좋은 계획을 많이 준비해서 기대 가운데 Youth Camp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자들, 교사들, 찬양팀과 자원 봉사자들이 동원되고, 학생들의 점심 식사 준비를 위해서 여전도회가 총 동원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성경 공부와 찬양, 그리고 음악 기초 이론, 오후에는 간단한 연주와 함께 직접 악기를 다루도록 했습니다. 이틀 중 첫날에는 모든 학생들이 기타, 드럼, 키보드에 대하여 배우고, 직접 연주해 보도록 하고, 둘째 날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하나의 악기를 선택하여 좀 더 집중적으로 경험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악기는 남, 여학생 할 것 없이 단연코 '드럼'이었고, 그 다음은 '기타' 였습니다. '키보드'는 어려워 보여서 그런지 여학생 두 명만이 거의 개인지도 수준으로 배우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여러가지 이유로 악기를 직접 만져 보지 못했던 학생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참여를 하며, 많은 관심을 보이는지 미처 이러한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기대와 계획 이상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모든 일정을 잘 마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 중에서 이번 Youth Camp를 통하여 악기 연주에 대하여 특별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배우기를 갈망하는 8명의 학생은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별도의 성경 공부와 악기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이 학생들이 마음껏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께 높이 영광 돌릴 날이 눈에 보이는 듯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후 1:3)**





모든 교회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디고스예일교회도 매주 토요일은 주일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분주하게 드나듭니다. 특별히 장학 사역에 속한 많은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토요일에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부터 주일이 아닌 토요일에 시간과 과정을 달리하여 제자 훈련반에 속한 30여명의 대학생들이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장학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공부 과정으로 매년 한번 의무적으로 12주 과정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암송해야 하고, 발표도 해야하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현지 사역자들도 이 사역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 성경공부 과정에 최우선을 두고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장학 사역에 속한 학생들이 마치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룹별로 모여서 공부도하고, 토의도 하는 모습을 언제든지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와 Youth 그룹을 담당하는 6명의 교사들이 주일학교 준비를 위하여 토요일에 교회에 옵니다. 주일학교에서 사용할 재료들을 준비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율동도 미리 연습을 합니다. 이들 중 4명은 주일 예배 이후 익핏 예일교회로 가서 그곳의 주일학교 어린이까지 돌보는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담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또 찬양팀이 빠질 수 없습니다. 찬양 사역자를 포함하여 8명의 찬양팀이 거의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본당에서 연습을 하는데, 마치 듣기좋은 라디오를 틀어 놓은 것 처럼 주변 교실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거의 하루종일 찬양 소리로 가득합니다. 오랜 연습으로 지칠만도한데, 옆에 물 병을 하나씩 놓고 부족함을 연습으로 채우는 보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자발적인 결정으로 교회 청소를 하기 위하여 장학사역에 속한 학생 6~10명 정도가 매주 교회에 옵니다. 금년에 뽑힌 장학생 회장의 아주 기특한 추진력으로 특별한 사역이 없는 나머지 학생들을 2조로 나누어 격주로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당 물청소 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도 깨끗히 청소해서 얼마나 산뜻해 졌는지 모릅니다. 또한 큰 둥근 돌로 화단에 경계를 하고, 하얀색 페인트까지 칠해서 불 빛이 적은 밤에도 교회가 잘 보이도록 하는등 미처 생각지 못한 곳에도 저들의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의 친교와 토요일에 온 학생들의 식사와 간식을 담당하는 여전도회원들이 부엌 주변에 모여서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며 웃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일을 기다리는 디고스예일교회 성도들은 이미 토요일부터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찌어다 (시 30:4)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47 Davis Avenue #2L / White Plains, NY 10605

